◈ 5강: 러셀 vs 크립키
: 고유명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기호의 지시체(the referent)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기호가 지시하는 것 외에도 그 기호(이름, 단어들이나 문자들의 결합)와 연계되어 존재하는 것 즉 내가 기호의 의미(sense)라고 의도하는 바를 생각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호의 의미에 표현의 양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관한 예를 들면 (…) '저녁별'의 지시체는 '새벽별'의 지시체와 동일하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

-프레게(G. Frege), 「의미와 지시체에 관하여(Über Sinn und Bedeutung)」

1. 고유명사는 기술구로 바뀔 수 있다.

◈ '소크라테스'와 같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름들은 실제로는 기술어들에 대한 축약에 불과하다. (...) 우리들은 소크라테스를 직접 대면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를 명명할 수 없다. 우리들이 '소크라테스'라는 낱말을 사용할 경우에 실제로는 하나의 기술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생각은 '플라톤의 스승', '독약을 마신 사람', '논리학자들이 죽는다는 예로 많이 제시하는 사람' 등과 같은 이런 몇몇 구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름이라는 낱말의 고유한 의미에서 그 이름을 하나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논리적 원자론의 철학(The Philosophy of Logical Atomism)』

▶ 러셀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고유명사들이 '기술어들에 대한 축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소크라테스라는 고유명사는 '플라톤의 스승', '독약을 마신 사람', 혹은 '논리학자들이 죽는다는 예로 많이 제시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고유명사에도 내포가 있다는 프레게의 영향을 어렵지 않게 직감할 수 있다. 하지만 러셀은 프레게보다 좀 더 나아간다. 그는 고유명사에 어떤 외연도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2,000여 년 전에 독약을 마시고 죽은 소크라테스와 같이 죽은 사람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지금 살아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강신주'라는 고유명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는 '강신주'라는 고유명사도 '기술어들에 대한 축약'으로 이해할 것이다.

▶ 러셀은 '이것'과 '저것'과 같은 지시대명사를 '논리적 고유명사(logically proper names)'라고 부른다. 물론 이 때 '이것'이나 '저것'은 주체가 직접적으로 감각

적으로 의식하는 것들, 즉 우리가 감각을 통해 다른 것과 구별하는 것들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러셀의 입장은 분명하다. 경험적으로 구별되는 것을 지칭하는 이것이나 저것과 같은 단어만이 진정한 고유명사이고, 바로 이것과 저것에 '『상처받지 않을 권리』의 저자'나 '장자 연구자'라는 내포가 덧붙여질 때 강신주라는 고유명사가 가능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물론 강신주라는 고유명사는 가짜 고유명사이고 그 실체는 일련의 기술구들 혹은 기술구들의 축약에 지나지 않지만 말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유명사들은 기술구들의 축약에 불과하다는 러셀의 입장은 분명 라이프니츠적인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러셀이 영국철학자 특유의 경험론적 입장을 함께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진정한 고유명사란 오직 감각적으로 구분되어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으로 부르는 것뿐이라는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2. 고유명사는 기술로 바뀔 수 없다.

◈ 한 이름의 지시체가 하나의 기술 또는 일단의 기술에 의해 주어진다고 하자. 만일 이 이름이 그러한 기술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면, 그 이름은 고정 지시어(rigid designator)가 아닐 것이다. 그 이름은 모든 가능 세계에서 동일한 대상을 반드시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름과 필연(Naming and Necessity)』

▶ 크립키가 비판하려는 표적은 어떤 고유명사가 기술구들의 축약에 불과하다는 러셀의 생각이다. 다시 말해 그는 '고유명사=기술구'라는 공식을 해체하려고 했던 것이다. 간단한 예로 크립키의 논증을 재구성해볼 수 있다. 허균의 누나로 조선보다는 중국문단을 풍미했던 여류 시인 허난설헌(許蘭雪軒, 1563-1589)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러셀의 논리에 따르면 '허난설헌'은 '허균의 누나'나 '중국문단을 풍미했던 조선의 여류 시인'이란 기술구들에 다름 아닌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크립키는 가능세계의 논리를 도입한다. 가능세계에서는 '허난설헌'은 허균의 누나가 아닐 수도 있고, 혹은 시를 짓지 않았을 수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능세계에서 '허난설헌'이란 고유명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가능세계에서는 '허난설헌' 대신 '허균의 누나'라거나 '중국문단을 풍미했던 여류 시인'이라는 기술구들을 주어로 바꿀 수는 없다. 왜 그럴까? 가능세계에서는 오히려 "허난설헌은 허균의 누나가 아니다"라는 명제는 사용 가능하다.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가능세계니까. 하지만 '허난설헌'이란 고유명사를 '허균의 누나'라는 기술구로 바꾸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다. "허난설헌은 허균의 누나가 아니다"라는 명제는, 주어 허난설헌 대신 '허균의 누나'라는 기술구로 바꾸면, "허균의 누나는 허균의 누나가 아니다"라는 명제가 된다. 이러한 표현은 사실 가능세계에서조차 통용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허균의 누나인 여자가 허균의 누나가 아닐 수 있다는 말인가?